전주시,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신축이전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관 신축 등 그간 미진했던 사업 추진

전주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하여 그간 미진했던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신축이전 4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홍보관 신축 3억원 ▲ 삼천동 쑥고개로 개선사업 5억원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 혁신로 확장 4억원 ▲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 4억원 등으로 총 2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완산갑 김광수 의원, 완산을 정운천 의원, 덕진 정동영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행정자치부 방문·설득의 공조체계가 힘을 발휘한 성과로 풀이된다.

먼저,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신축이전 사업 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서서학동 주민자치회관 2층에 비좁은 공간으로 더부살이 하던 기존 시설을 새롭게 신축 이전,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홍보관 신축 예산 3억원 확보를 통해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운영이 전국 우수사례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치단체 및 상인회가 줄을 잇고 있어 우리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은 한옥마을을 찾는 1000만 관객들의 주차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학술대회 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학술대회에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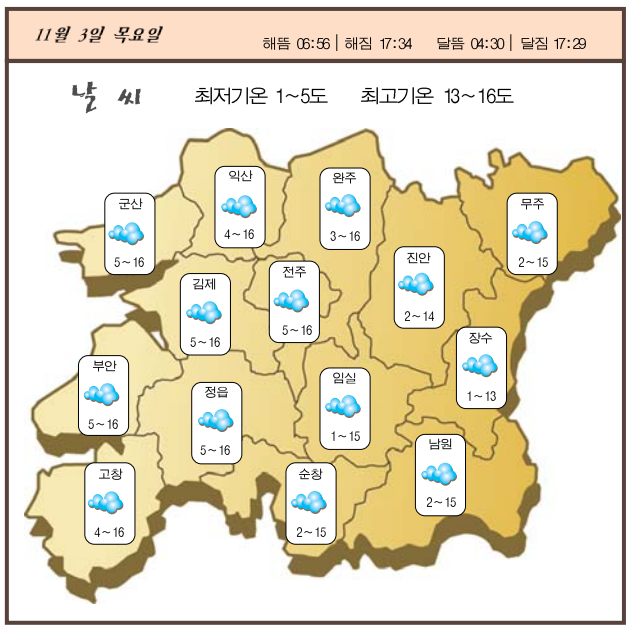
삼천동 쑥고개로 개선사업 5억원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혁신로 확장 4억원은 동산동, 조촌동 일원 병목현상 개선으로 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 4억원은 전주역광장에서 명주골 네거리를 전주를 대표하는 보행중심 명품 특색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마무리 사업비로 조속한 공사 완료로 주민편익과 명품거리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자치부 방문 설득 등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와 특교세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지난 상반기에도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22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한 노하우를 살려 하반기에도 2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여건이 좋은 만큼 하반기 남은 기간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완산구청(구청장 이용호) 8층 강당에서는 2일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악기 프로그램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는 완산구 17개동 주민자치센터 노래, 악기프로그램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수강생들에게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화1동 라인댄스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민요장구, 난타, 기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7개동 노래교실 수강생들의 멋진 공연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이용호 완산구청장은 "수강생들의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에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들의 욕구 충족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대 박강훈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IBC 등재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강훈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100대 교육자로 이름을 올렸다.

2일 전주대에 따르면 박교수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2016년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 2016)'에 등재됐다.

박 교수는 앞서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도 등재돼 있다.

박 교수는 'Language Science'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연속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또 일본어·영어 멀티링구얼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최초로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학과 내 재학생들을 위해 'K-MOVE 스쿨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13명의 학생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고민형 기자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 무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전주시립송천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무료 시민로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전주시립송천도서관이 주관해 사전 접수자 15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매주 수요일에 4회 연속 실시된다.

강연주제는 '교통사고 아니이니 아니되오~'를 시작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을 꼭 챙겨라!', '빚도 상속이 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로 구성됐다.

최우철 소장은 "주민들이 이번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법적 지식을 익히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전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준법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이병기 청년시문학상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시문학상 대학부 전명환 · 고등부 황주연 소설문학상 윤선미 · 윤정은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 이병기 청년시문학상·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돼 지난 1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병기 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대과거'를 쓴 전명환(중앙대 국어국문 2년) 씨가, 고등부문에는 '몽상'를 선보인 황주연(경산여고 2년) 양이 선정됐다.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대학부문에는 '꽃에서부터'을 쓴 윤선미(서울디지털대 문창 3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야간비행'을 쓴 윤정은(인양예고 2년) 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간과 삶의 관계를 소재로 한 시 부문 대학부 수상작 '대과거'는 독자와 합일된 감정을 공유하는 데 성공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몽상'은 성년 무렵에 직면하는 미래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시 감성을 잘 유지해 수상작에 선정됐다.

소설 대학부 수상작 '꽃에서부터'는 서사를 이끄는 힘과 완결미, 평범한 소재에서 큰 감동을 이끌어 낸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개발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고등부 수상작 '야간비행'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안정된 문장과 구성으로 담담하게 소설을 이끌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학 문학 공모전 중 국내 최대 규모답게 올해 역시 많은 작품들이 응모됐다.

시 부문에는 167명 669편이, 소설 부문에는 108명 116편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시 부문 심사는 최승범·양병호·유인실·이승철 위원이, 소설 부문 심사는 서철원·황보윤·장미리·김소윤·최기우 위원이 맡았다.

이남호 총장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그간 손홍규, 전아리, 이혜미, 백상웅 등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들을 발굴해 내며 전북대의 자랑이 되고 있다"며 수상자들에게 "우리나라 문단을 세계적으로 이끄는 그 중심에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